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김창인 목사 성역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 구성

60년 중 44년을 충현교회에서 목회사역
영력 넘치는 설교와 삶을 통한 실천의 본 보여
김창인 목사의 신앙 - 목회활동을 정리하는 기회로

올 해, 1997년은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성역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김창인 목사는 21세가 되는 1936년 3월, 그 당시 일제 치하에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민족을 하나님의 품 안에 주소를 정하게 해 주려는 뜻을 품고 평북 의주군 주내면 창전교회를 담임하심으로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23세가 되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여 신앙 투쟁을 계속하여 왔고 해방 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출옥 성도들과 함께 교회 재건운동을 시작하며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교회의 새로운 재건운동을 위해 월남하여 부산에서 동일교회를 개척하였고 서울 수복 후 갓터미가 된 서울에서 1953년 9월 6일 주일에 18명의 교인과 함께 오늘의 충현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목회 60년, 충현교회에서만 44년 동안 김창인 목사는 어렸을 때 받은 철저한 청교도적이고 순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력 넘치는 설교와 자신의 삶을 통한 실천의 본을 보이시며 충현교회를 성장시켜 왔고 또한 타고난 지도력으로 교회 학교를 부흥 발전시켜 한국 교회에 기여

케 하고, 경목 사업의 시행, 농어촌교회 교역자, 평신도 훈련, 전교인 성경공부, 구역권찰회의 현대적 운영체제 등을 실시하며 전국 교회가 이를 본받아 시행하게 하여 한국 교회에 해외선교의 불을 당겼고, 냉전이 한창인 시대에 북한 선교를 주창하여 오늘날 각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북한 선교의 물꼬를 트게 하기도 했다.

생애의 마지막 사업으로 높은 해안을 가지고 강남에 교회당 부지를 선정 1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완공케 함으로 늘 말씀하시던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 유산과 예배당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목회의 마침이 되었다 싶었으나 새로운 세대와 물려오는 세속주의의 격랑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훼손없이 지켜 수많은 신학 사조와 주의, 운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오는 동안 성역 60주년을 맞게 된 것이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전임 사역으로 60주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큰 복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임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감사와 은혜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충현교회 당회는 김창인 목사의 성역 60주년을 기하여 김창인 목사의 신앙과 목회 활동을 정리하여 온 교회에 알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역 60년 동안 가르치고 행한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며, 김창인 목사의 수고를 위로하고, 또한 김 목사가 평소에 실천하려고 소원하던 복음 사업을 충현교회가 이어 받아 실천하고

자 하기 위하여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기념행사일은 1997년 5월 15일(목)로 정했다.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당회 서기 김은호 장로, 서기에 윤성철 장로, 회계에 최대원 장로이며 각 분과별 위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과	분과장	지도	분과위원(장로)	분과위원(목사)
기획 및 진행	김차생	김찬곤	윤명식, 강순용, 우기전, 손동운, 노광현, 오진국, 정하우, 하대선, 최대원, 박승준, 강은원, 남선우, 김재명, 이종국, 윤성철	장봉생, 김동석
예배	김재명	현상민	이병학, 이훈, 차신득, 이종석, 김여순,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최기홍	조윤재, 윤삼중, 전형준
재정	최대원		윤명식, 김은호, 김차생, 노광현, 오진국, 이종국, 안종욱, 최명환, 진홍용	
봉사	우기전	이홍성	김경철, 김영길, 문홍구, 이하영, 박인건, 박상준, 이갑재, 이정우, 손철	이종대, 최영찬, 윤종일
섭외 및 의전	하대선	성봉환	김의철, 마성락, 서일영, 윤인현, 임필성, 송기홍, 오정현, 최성현, 송환창, 조인제, 김재관, 김종구, 최무길, 김천재, 이창호, 이병욱, 이인상, 강봉수, 전홍렬, 김단용, 황영일	김희수, 이승립, 김필수
출판 및 홍보	조선근	한근수	정운석, 손정수, 정정주, 이승철	장경철, 이종대, 김재철
장학재단 설립	김병진	정유천	정광호, 강모용, 서동석, 박영식, 김광남, 이종국, 임무천, 최기홍, 이종섭, 진홍용	정광욱, 박경한, 이국병

오늘 저녁 찬양예배 총회 주관 군목 파송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총회가 주관하는 군목 파송예배로 드려진다. 사회는 현상진 목사, 기도는 총회 군목부 총무 문원재 장로, 설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 파송 군목 소개는 군목단 총무 윤병국 목사, 파송장 수여와 축도는 총회 군목부장 규자립 목사가 각각 맡았다.

오늘 군목으로 파송받는 군목은 모두 16명이다.

4월 8일에 군목후보생수련회

4월 8일은 하루 종일 우리 교회당에서 군목후보생수련회가 열린다.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 군목후보생수련회는 군복음화후원회가 주최하여 1997년도에 군목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데 별교단적으로 35명이 참가한다. 이 날 수련회에는 군목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군에 대한 사전 지식 및 특성들에 관한 교육을 시키게 된다.



부활절 찬양의 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온 종일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주일예배 1, 2, 3, 4부를 비롯하여 각 교회학교에서 축하예배와 행사를 가지며 부활주일을 보냈다. 저녁찬양예배는 '부활절 찬양의 밤'으로 다시 모여 임마누엘찬양대가 준비한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과 몸으로 잘 준비한 연주에 동참하며 성도들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우리의 피난처

(시편 46:1-3)

시 편 46편의 저자는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자의 환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죄값을 받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년이 지나며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사이에 북방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앗수르가 이제 남방 유다를 마저 삼키려고 쳐들어 올 때 수도 예루살렘까지 포위되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귀로 듣기는 들어도 입으로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말아라. 어떠한 조롱과 저주를 해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말은 일에 충성을 다 해라.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으로 농사를 짓고 철공하는 사람은 철을 녹이고 베를 짜는 사람은 베를 짜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장사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이 편안할 때에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가 원수가 쳐들어 올 때에 막아야 하는데 전쟁 준비는 못해 놓고 자기는 싸우지도 못하면서 원수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말라. 자기의 말은 일에 충실해라 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앉아서 기다리자니 먹을 양식이 없고 죽을 판인데 장사는 해서 땀하고 집은 지어서 뒤흔" 할 판인데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부탁하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와 타협하려는 반역심도 없이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옷장사하는 사람 옷 팔고 집짓는 사람 똑딱똑딱 집 짓고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일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대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같은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벽의 원수들이 너무 조용해서 나가 보니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언제 죽었는지 다 죽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수들이 살고 온 양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울 때에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였으니 너무 고마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1.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은 무서운 전쟁 마당입니다. 세상은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고 악마가 팽 산 곳입니다. 원수는 많고 원수의 협박과 공갈은 심히 간악하여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느 장소를 가야 참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피난처라는 것은 사람이 괴롭고 위태로울 때에 고통과 위험을 면하고 위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땅 위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근심과 질병이 습격해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 구라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구 잡아 죽이던 때에 펠릭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 속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펠릭스를 뒤쫓아 오던 자도 산을 헤매다가 이 굴을 발견하고는 잠으려고 들어가다 보니 굴문에 거미줄이 쳐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쳐있는걸 보니 사람이 안들어간 것이 분명하구나"하고 돌아섭니다. 한참을 있다가 펠릭스가 나와 보니 자기를 잠으려고 하는 자는 간 곳이 없고 굴문에는 거미줄이 팍 차 있습니다. 그 때에 펠릭스는 이 거미줄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만 명 군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만 명 군사도 거미줄같이 금방 끊어지는구나."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거미줄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거미는 날아가는 나비나 벌레를 잡으려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줄을 쳤지만 하나님은 펠릭스를 살리기 위해 거미를 통해서 피난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면 피난처가 못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거짓말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고 장판 피난처에 대통령 피난처에 숨으려 하고 돈 많고 세력 많은 사람을 피난처 삼으려고 하나님 땅 위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2) 힘이십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삽니다. 몸에는 건강의 힘이 있어야 하고 생활에는 물질의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아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하고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십만 대군도 거미줄만 못한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시민의 정당한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건강도 전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니엘의 지혜도 있고 다윗의 승리도 있고 모세의 이적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선한 일을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마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선한 일 실패 없이 성공하고, 악마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천국으로 가는 길도 달음질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세상은 환난이 많은데 환난 가운데 도움을 입는 복이 큰 복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UN군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도움입니까. 개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려고 별 곳을 다 찾아 다녀도 완전한 도움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을 해결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굶어 죽느냐, 원수의 칼에 죽느냐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판과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가 믿음이 좋아서 위험한 때를 만나서도 자세를 바로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성도의 신앙이 어떠합니까(46:2-3)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변합니다. 평지가 웅덩이로 되고 산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령하게 해석해 보면 산이란 권세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권이 흔들려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없어진 것처럼 큰 나라가 하루 아침에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닷물이 흉용한다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없어져도 즉 정권이 무너지고 백성의 반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세상의 자연현상이 변해도, 세상의 정권이 열 번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가 늘 부르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악마의 무리가 성의 기왓장만큼이나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마틴 루터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십만 대군도 거미줄만 못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몸에 건강을 지켰다고 떠들어 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약하고 지식이 약해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사람 찾아 다니지 말고 무릎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도 반역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자 책임에 충성하는 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은 못하고 원망을 앞세우고 반역하는 자는 꿈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시민의 정당한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건강칼럼 ▶

두 통

최영철

(집사, 3교구, 신경과 전문의)

두통은 평생을 살면서 한번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두통을 늘 있는 것처럼 여겨 통증을 참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경미한 두통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병원을 찾게 된다. 일부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두통이 생기면 흔히 뇌종양이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혼자서 고민하며 종종 걱정하곤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성인의 약 70% 이상이 약물을 복용할 정도의 두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다. 두통의 원인도 다양하여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한 원인부터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두통이 있고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이 중요하고, 그 두통이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알려 주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두통의 원인과 분류

두통의 원인에 따라 신체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비기질적 두통(특발성 또는 원발성 두통)과 신체적 이상이나 두개강 내의 이상으로 오는 기질적 두통(중후성 또는 2차성 두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두통 중에서는 기질적 두통과 비기질적 두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질적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며, 특히 뇌종양, 뇌막염, 뇌출혈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의의 철저한 진찰을 필요로 한다. 비기질적인 두통은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집성 두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의 스트레스 등

으로 복합적이고 구분하기 어려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편두통 증상과 종류

편두통은 젊은 여성에게서 비교적 잘 나타나며 가족력이 있고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재발하는 박동성 두통으로 일반적인 증상(식욕부진, 오심, 구토, 눈부심)과 신경계 증상이 동반하기도 하나 중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두통의 양상이 변화되어 중세가 호전된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혈관의 이상으로 두통이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두통은 신경계 증상 유무에 따라 고전적 편두통과 일반 편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통과 동반되는 신경계 증상은 다양하며 전구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시력장애가 가장 흔하며 그외 압력, 시력감퇴 등이 지속된 후 두통이 오거나 동시에 두통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신경계 증상으로는 편마비, 감각장애, 현기증 등이 있다.

3. 편두통의 치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두통의 발생기전은 단순하지 않고 그 원인도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임상 증상도 환자에 따라서 다르고 두통의 강도와 두통

의 빈도도 환자에 따라서 달라 치료도 환자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면 환자는 이 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록 두통의 발작증상이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고 중년이 지나면서(50-60세 이후) 서서히 두통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편두통 환자는 성격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 직장 또는 주위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때로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등이 편두통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정 식품, 알코올, 커피, 향료, 치즈 등이 편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잘 조사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약물도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복용하는 약물은 의사와 잘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약물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치료 방법이 있다. 급성기 치료는 두통이 발생시 두통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예방치료는 두통이 자주 오는 경우 평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약물 사용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어느 장기수의 간증 ◆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글은 우리 교회 교정전도회 송정배 권사, 이의복 권사, 이정삼 성도팀이 전주교도소에서 전도활동을 하던 중 만나 교제를 나누게 된 한 장기 복역수가 쓴 것이다.)

나의 추함과 창피함을 담대히 쓰고자 함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부족한 글을 적습니다.

조카를 죽인 죄로 15년 형을 받고 속죄의 나날을 보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결심했을 때 밖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 나같은 인간을 만나 고생만 했던 아내, 철없는 어린 삼남매를 생각하니 삶의 의욕은 완전히 상실됐으나 '나 하나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아내가 면회 와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었다며 열심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나와 거리가 멀고 배척하기만 했던 성경책을 읽으라니 쫓아서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려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 아내가 넣어준 어떤 책이라도 읽어 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손은 묶여 불편하였지만 주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믿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려 읽은 것은 더욱 아니고 다만 아내의 마지막 부탁으로 알고 읽었습니다. 머리 속은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의 눈은 글씨만 따라 한 자 한 자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루속히 읽고 나의 생을 끝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자로 낙인 찍혀 살아 있는 그 순간이 괴로웠고 나의 진실은 묵살되어 나의 마음을 양말처럼 뒤집어 보일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4-5절에 가서 나는 멈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다. 두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데, 같이 있던 수감자들이 정신나갔다고 놀렸습니다.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시간 외에는 주야로 미친 듯이 성경책만 읽던 사람이 갑자기 두 눈을 감고 며칠 동안 성경만 붙잡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16년 전 나의 결혼식때 주례를 맡아 주신 목사님의 주례사였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계의로 김제 중앙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일이 기억이 나니 무척 기뻛고 나 자신도 모를 어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살려 했고 나의 오만함으로 살아 왔고 생명을 회복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랐고 그저 죄악 속에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수십번 똑같은 말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혼식 주례를 맡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는데 본래의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 갔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를 맡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요한복음 15장 4-5절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나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중헌 교회 어느 권사님(당시 집사님)께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주님을 찾았고 한 생에서 쓴물과 단물이 분위기에 따라 나오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일진대, 나에게는 사랑이 조금도 없었고 실천 한 번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찾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한 나의 믿음 생활, 온실 속의 믿음도 되지 못하는 나의 믿음생활에 중헌교회의 또 다른 권사님께서 나에게 양심의 회초리가 되어 사랑의 실체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 완악한 나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지체인 형제를 시기와 질투로 대했고 손해와 이익을 구별하여 형제를 대한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권사님께서 지도해 주셨고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다시 깨달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사랑하며 진리가 아닌 길은 절대로 걸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둔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만길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권사님과 아드님, 주님의

교회의 또 다른 권사님을 통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격려되어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욕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제 속에서도 사랑의 매를 들어 주시는 권사님, 어머님처럼 감싸 주시고 불의를 용서치 않으신 권사님께 항상 눈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 주신 세 분을 통하여 나의 모란 곳을 다듬어 주심과 내가 사랑의 빛진 자임을 고백하며, 또 쌓이는 사랑의 빛에 감사하며 조금씩 조금씩 갱신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의 수형생활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의 사명 다하고 자 기도하며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의 성가대에서 찬성 봉사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이 모습을 아내와 어린 삼남매가 볼 수 없어도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인의 피수를 구원하셔서 아들을 삼아 주시고 성가대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 훗날 가족과 손에 손잡고 교회에 함께 가는 소망과 사랑의 빛을 갇아야 할 사명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헌교회 어느 권사님 모자가 함께 일하시는 그 사명을 아내와 함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험은 없어도 대강 짐작으로 알 수 있지만 죄를 지어도 내가 더 지었고 사랑을 받아도 누구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기에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토막소식

▶ 유치부에서는 오늘 부활절 그림 그리기대회를 실시한다.

▶ 초등부에서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요한복음 중 분반 공부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다.

▶ 소년부에서는 오는 4월 27일 1차 초청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실시한다. 찬송가 중 택일하여 참가하면 된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4월 13일 십계명의 위기대회를 한다.

▶ 교정전도회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복음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신앙서적 등 도서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 기간은 4월 13일까지이며 갈릴리움 뒷편에 위치한 교정전도회실로 가지고 오면 된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4월 10일(목) / 5교구

충현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3월부터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대상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분으로서, 주 1회, 6개월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내용은 수업 보조(체육, 쿼트, 현장학습, 캠프)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작업 보조, 사무 보조 등입니다.

문의 : 충현복지관 지역사회재활과 ☎ 562-0548, 564-4885



경찰청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경찰전도회(회장 이갑재 장로)에서는 지난 3월 26일 경찰청교회에서 부활절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경찰전도회 지도인 김희수 목사가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고 이갑재 장로의 기도과 여성회원들의 특송 등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2천

명의 경찰관들과 전, 의경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의미에서 계란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설립예배를 드린 이 전도회는 현재 67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경찰의 복음화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까지 회원 250명 가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관심있는 성도들은 이 전도회에 가입하여 경찰의 복음화에 함께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를 다녀와서

세계 곳곳이 선교지 가는 곳마다 절실한 복음

정은희

(청년2부 회원, 소년부 교사)



1. 홍종란 선교사와의 만남과 감비아를 가게 된 동기

88년 한국은행에서 홍종란 선교사를 만남으로 나는 충현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91년 여름부터 시작한 홍 선교사를 위한 기도후원회 총무로 봉사하면서 '선교'와 '감비아'라는 단어는 내게 친숙해졌고, '96 선교한국을 통해서 나의 마음은 선교를 향해서 기쁨으로 열려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감비아로 부르시는 것같은 여러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감비아를 다녀오기로 결단을 했다.

2.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계획보다 15일이 늦어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물질 부분에서도 나의 인간적으로 의지하려 했던 것을 철저히 파하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 사람들과 알지

도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물질 채우사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또한 홍 선교사님의 예전 직장인 한국은행의 선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과 사역으로 육신이 지치고, 약해져서 힘이 필요했던 홍 선교사에게 나의 감비아 방문 소식은 새 힘이 되었다. 도착해서 보니, 내 계획대로 갔더라면 선교사님은 조금도 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15일이 늦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도 정확하여서 선교사님이 잠시나마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3. 감비아

감비아는 마을마다 회교 사원이 있어 어디에서나 하루 5차례씩 절제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모슬렘 국가로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안에 위치해 있는 해안국가이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가난하였고, 결혼을 못하면 저주받은 줄로 믿어서 일부다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며 막중한 일로 고생하는 여성들, 자기 형제가 몇 명인지 헤아려지도 못할 정도로 가족의 개념이 희미하며, 교육조차도 받지 못하고 농사를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많은 아이들, 한가하게 한담을 하며 그늘에 앉아 있는 남성들,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40세로 많이 낮기도 하지만 많이 죽기도 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 되면 칙칙하게 어두우나, 마을은 사람들의 짐승들의 소리로 시끄럽다.

홍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GOOD SEED MISSION에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은 온 마을을 진동시킨다. 4살부터 초등학교까지 40여명과 홍 선교사, 톰 선교사 가정, 독일인 단기사역자, 장성한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고, 농사와 공동체 안의 모든 일을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간단한 의료사역과 마을 여성에게 바느질과 위생 교육을 하는 등 삶 자체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치료의 일과 특별히 홍 선교사님이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과,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차로 3시간 떨어진 브라카마에 있는 이재환 선교사님의 WEST AFRICA MISSION에서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1달이란 시간을 보냈다.

4. 결단의 시간

홍 선교사님은 감비아 사역에 동역자로 내가 함께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압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기도하자고 하셨다. '언어도 안통하고 사람도 적은 이곳보다,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많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는 갈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지에 나오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에 나를 붙잡았다. 기도 중에 주님 앞에 나의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은 이때에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 결단을 하고 나니, 그 전에 느끼던 선교사와는 느낌이 달랐다. 이제 시작이지만 동역자로서 피부로 다가왔다. 여러 달 동안은 예수 그

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나의 길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시간을 보내고, 2-3년 정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감비아를 떠나왔다. 여기까지 왔으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내 마음 편에 새긴다.

5. 느낀 점과 비련

이번 감비아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선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과 끊임없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며주시는 이재환 선교사 가정과, 톰 선교사 가정, 홍종란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짧은 시간으로 감히 무엇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서 느낀 것은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점이다. 문명의 혜택이 적고 열악한 환경이라서 엄청난 고생만 생각하면서 선교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또한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지도 깨달았다.

단체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한, 두 명이 선교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며, 그 땅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더 실제적인가를 경험하면서 선교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선교지 체험을 권하고 싶다.

